

2026년 개정 기준 · 공식 출처 교차검증

직장인 월급 방어 올인원

실수령액부터 연말정산 · 대출 · 퇴직금까지
새는 돈을 막는 20가지 계산법



일러두기

기준 시점 — 이 책의 모든 요율·세율·제도는 **2026년 기준**입니다. 세법과 사회보험 요율은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신고·계약·투자 결정 전에는 해당 시점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4대보험 요율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식 모의계산기로 교차검증했습니다. 대출 규제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세제는 국세청 안내자료를 따랐습니다. 전체 확인처는 부록 C에 정리했습니다.

계산 기준 — 본문과 부록의 실수령액은 **비과세 월 20만원(식대), 부양가족 본인 1명**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반영한 추정치이며, 회사가 실제로 원천징수하는 금액(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액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사례에 대하여 — 본문의 인물과 사례는 계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설정입니다.

면책 — 이 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투자에 관한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 구조와 재산 상황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 저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방식 — 이 책은 AI(Claude)가 공식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자료를 수집하고 초안을 작성했으며, 사람이 수치와 논리를 검토한 뒤 발행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어 밝혀 둡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개정판에 반영하겠습니다.

저작권 — © 2026 직장인 월급 방어 올인원 (salarystock.com). 이 책의 무단 복제·배포·재판매를 금합니다. 구매자 본인의 개인적 이용에 한해 열람·인쇄할 수 있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 00 버는 법 말고, 지키는 법
-

PART 1·내 월급의 진짜 구조

- 01 세전과 실수령 사이에서 사라지는 돈
 - 02 2026년 4대보험 요율, 뭐가 얼마나 올랐나
 - 03 내 실수령액 직접 계산하기
 - 04 비과세로 실수령액 늘리기
 - 05 급여명세서 5분 점검법
-

PART 2·연말정산 — 13월의 월급

- 06 연말정산 전체 흐름 한 장으로 이해하기
 - 07 환급액을 실제로 바꾸는 것들
 - 08 놓치기 쉬운 항목 체크리스트
 - 09 연말정산 월별 실행 캘린더
-

PART 3·대출 — 한도와 이자를 정하는 규칙

- 10 DSR — 한도를 정하는 하나의 숫자
 - 11 스트레스 DSR — 한도를 더 줄이는 장치
 - 12 상환 방식이 총이자를 바꾼다
-

PART 4·퇴직금 — 마지막 월급을 지키는 법

- 13 퇴직금 계산식과 평균임금의 함정
 - 14 DB형과 DC형, 그리고 퇴직소득세
-

PART 5·주거 — 전세와 월세를 같은 자로 재기

15 월 비용으로 환산해서 비교하기

16 전월세전환율과 계약 갱신

PART 6 · 정부지원금 — 몰라서 못 받는 돈

17 지원금은 여기서 찾습니다

18 직장인이 특히 놓치는 제도

PART 7 · 남은 돈을 굴리는 순서

19 복리 — 시간이 하는 일

20 돈을 넣는 순서

부록

A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표 (2,000만 ~ 1억, 81행)

B 한 장으로 보는 체크리스트

C 공식 확인처와 계산기

서점의 재테크 코너에 가면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대부분입니다. 주식, 부동산, 부업, 파이프라인. 그런데 월급으로 사는 사람에게 실제로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미 벌어놓은 돈이 어디로 새는지**입니다.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사람의 통장에는 매달 3,333,333원이 아니라 **2,886,736원**이 들어옵니다. 차액 446,597원. 1년이면 535만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중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수익률 5%를 더 내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66만원을 더 돌려받거나, 대출 상환 방식을 바꿔 총이자 4,400만원을 아끼는 건 **지식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 책은 그 지식을 다룹니다.

이 책이 다루는 것

내 월급의 구조

세전에서 실수령까지 무엇이 얼마나 빠지는지. 2026년 기준 요율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연말정산

돌려받는 사람과 더 내는 사람의 차이. 12월이 아니라 1년 내내 하는 일입니다.

대출

DSR이 한도를 정하는 방식과 상환 방식이 총이자를 바꾸는 폭.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의 함정. 퇴사 시점 하나로 수십만 원이 달라집니다.

주거

전세와 월세를 같은 단위로 놓고 비교하는 법.

지원금·복리

몰라서 못 받는 제도와, 남은 돈을 시간에 맡기는 방법.

이 책이 다루지 않는 것

종목 추천, 매매 기법, 수익 인증은 없습니다.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고, 안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권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의 모든 숫자는 **법과 고시로 정해져 있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이 책 사용법

1

부록 A부터 펴세요

내 연봉의 실수령액을 먼저 확인하면 나머지 내용이 훨씬 구체적으로 읽힙니다.

2

계산기를 같이 쓰세요

각 장 끝에 salarystock.com의 무료 계산기 주소를 적어뒀습니다. 내 숫자를 직접 넣어보세요.

3

체크리스트만 따로 보세요

부록 B에 모든 체크리스트를 모아뒀습니다. 인쇄해서 쓰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숫자의 출처에 대해

이 책에 나오는 요율과 제도는 모두 공식 1차 출처에서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식 모의계산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국세청 안내자료. 부록 C에 확인처를 전부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세법과 제도는 매년 바뀝니다**. 이 책은 2026년 기준이며, 실제 신고나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PART 1

내 월급의 진짜 구조

세전 연봉과 통장에 찍히는 돈 사이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알면 연봉 협상도, 이직 판단도 달라집니다.

세전과 실수령 사이에서 사라지는 돈

연봉 4,000만원의 월 세전은 3,333,333원. 통장에 들어오는 건 2,886,736원입니다. 매달 446,597원이 어디로 갈까요.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딱 두 종류입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 그게 전부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떼는 것도, 설명할 수 없는 항목도 없습니다.

빠지는 항목	연봉 4,000만원 기준 (월)	성격
국민연금	148,833원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음
건강보험	112,643원	의료비 보장
장기요양보험	14,801원	건강보험료에 연동
고용보험	28,200원	실업급여 재원
4대보험 소계	304,477원	
소득세	129,200원	연말정산으로 정산
지방소득세	12,920원	소득세의 10%
세금 소계	142,120원	
공제 합계	446,597원	

중요한 구분

4대보험료 304,477원 중 상당 부분은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돌아오고,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라지는" 돈은 세금 142,120원과 건강보험료 정도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률은 떨어진다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금은 **누진**이라 연봉이 오를수록 더 큰 비율로 빠집니다.

연봉	월 실수령	연 실수령	실수령률
2,000만원	1,505,895	18,070,740	90.4%
3,000만원	2,233,194	26,798,328	89.3%
4,000만원	2,886,736	34,640,832	86.6%
5,000만원	3,521,211	42,254,532	84.5%
6,000만원	4,149,473	49,793,676	83.0%
7,000만원	4,777,734	57,332,808	81.9%
8,000만원	5,318,862	63,826,344	79.8%
9,000만원	5,897,488	70,769,856	78.6%
10,000만원	6,480,427	77,765,124	77.8%

연봉 2,000만원은 90.4%가 남지만 1억원은 77.8%만 남습니다. **연봉이 5배가 되어도 실수령은 4.3배밖에 안 됩니다.**

연봉 1,000만원 인상의 실제 가치

연봉 협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1,000만원을 올려도 손에 들어오는 건 1,000만원이 아닙니다.

연봉 인상 구간	연 실수령 증가액	체감률
3,000 → 4,000만원	7,842,504	78.4%
4,000 → 5,000만원	7,613,700	76.1%
5,000 → 6,000만원	7,539,144	75.4%
7,000 → 8,000만원	6,493,536	64.9%
9,000 → 10,000만원	6,995,268	70.0%

연봉 협상 전에 계산해 두세요

연봉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면 세전은 1,000만원이 늘지만 실수령은 **699만원**만 늘어납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연봉 구간에서는 세전 인상액보다 **비과세 항목·복지 혜택·퇴직연금 납입**이 실질 소득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뭐가 얼마나 올랐나

2026년에 국민연금 요율이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1998년 이후 처음입니다.

항목	2025년	2026년	변화
국민연금	4.5%	4.75%	+0.25%p
건강보험	3.545%	3.595%	+0.05%p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대비)	12.95%	13.14%	+0.19%p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0.9%	동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만원	659만원	+42만원

국민연금 요율 인상은 단계적으로 계속됩니다

2025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매년 0.5%p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부담은 그 절반이므로 **매년 0.25%p씩** 오릅니다. 2026년 4.75%, 이후에도 매년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계산 순서

1 월 급여에서 비과세를 뺀다

식대 월 20만원 등. 이 금액이 '보수월액'이 됩니다.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료 계산에서 아예 빠집니다.

2 각 요율을 곱한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를 각각 보수월액에 곱합니다.

3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곱한다

보수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순서를 헛갈리면 값이 크게 틀립니다.

$$\text{국민연금} = (\text{월급} - \text{비과세}) \times 4.75\% \quad \cdot \quad \text{건강보험} = (\text{월급} - \text{비과세}) \times 3.595\%$$

$$\text{장기요양} = \text{건강보험료} \times 13.14\% \quad \cdot \quad \text{고용보험} = (\text{월급} - \text{비과세}) \times 0.9\%$$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입니다. 보수월액이 그보다 높아도 659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근로자 부담 최대치는 월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실제 데이터로 보면 명확합니다. 연봉 8,100만원까지는 4대보험료가 100만원 오를 때마다 약 8,100원씩 늘어나는데, **8,200만원부터는 4,140원씩만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이 상한에 걸려 멈췄기 때문입니다.

연봉	4대보험 (월)	전 구간 대비 증가
8,000만원	628,391원	+8,098원
8,100만원	636,489원	+8,098원
8,200만원	642,528원	+6,039원 ← 상한 진입
8,300만원	646,667원	+4,140원
8,400만원	650,807원	+4,140원

건강보험료 상한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에도 보수월액 상한이 있지만 월 1억원대로 매우 높아 대부분의 직장인에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한도 있어서, 아주 적은 급여라도 최소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계산기 없이도 5분이면 됩니다.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1 월 세전 급여를 구한다

연봉 ÷ 12. 단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 13으로 봐야 실제에 가깝습니다.

2 비과세를 뺀다

식대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까지, 6세 이하 자녀 육아수당 월 20만원까지.

3 4대보험을 뺀다

앞 장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대략 보수월액의 9.7% 수준입니다.

4 소득세를 뺀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5 지방소득세를 더 뺀다

소득세의 10%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소득세 구간 (2026년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 ~ 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 ~ 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 ~ 1억 5,000만원	35%	1,544만원
1억 5,000만 ~ 3억원	38%	1,994만원
3억 ~ 5억원	40%	2,594만원
5억 ~ 10억원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세율 구간이 올라가도 전체 소득에 그 세율이 붙는 게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과세표준이 5,100만원이라고 전액에 24%가 붙는 게 아니라, 5,000만원을 넘는 **100만원에만** 24%가 붙습니다. "구간 넘으면 손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계산기 값과 급여명세서가 다를까

회사가 매달 때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이건 실제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어두는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계산기 값과 몇 만 원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이고, 그 차액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참고로 간이세액표는 80% / 100% / 120% 중에서 회사에 선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늘고 연말정산 환급은 줄어듭니다. 총액은 같습니다.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기

salarystock.com/calc-net-salary — 연봉·비과세·부양가족을 넣으면 항목별 공제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을 챙기면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4대보험과 세금 양쪽에서 동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비과세는 **이중으로 이득**입니다. 4대보험료 계산 대상에서 빠지고, 소득세 계산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월 20만원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면 대략 월 3~5만원의 실수령 차이가 납니다.

비과세 항목	한도	조건
식대	월 20만원	별도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비를 받지 않을 것
출산·6세 이하 자녀 육아수당	월 20만원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한도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연 240만원	월정액급여 및 직종 요건 충족 시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연구활동 종사자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국외 근무 형태에 따라 상이

연봉 총액이 같다면 비과세 비중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이직이나 연봉 협상 시 "연봉 4,000만원"만 보지 말고 **비과세 항목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식대가 비과세로 잡힌 회사와 아닌 회사는 같은 연봉이라도 연 40~60만원 차이가 납니다.

다만 비과세 급여는 국민연금 산정 기준에서도 빠지므로 **장기적으로 받을 연금액은 조금 줄어듭니다**. 당장의 현금흐름과 노후 연금 사이의 선택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는 법적 의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열어보지 않습니다.

2021년부터 사용자는 임금의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개만 확인하세요

- ☐ 기본급 + 각종 수당 합계가 계약서상 월 급여와 일치하는가
- ☐ 비과세 항목이 실제로 비과세로 잡혀 있는가 (식대 20만원 등)
- ☐ 국민연금이 (과세대상 급여 × 4.75%)와 맞는가
- ☐ 건강보험이 (과세대상 급여 × 3.595%)와 맞는가, 장기요양이 건강보험료의 13.14%인가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가산돼 있는가 (각 50% 이상 가산)

4월 급여가 유난히 적다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을 확인해 매년 4월에 그동안 덜 낸 보험료를 한 번에 정산합니다. 전년에 연봉이 올랐다면 4월에 목돈이 빠져나갑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ART 2

연말정산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12월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1년 내내 어디에 돈을 넣을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연말정산 전체 흐름 한 장으로 이해하기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이미 낸 세금과 실제로 냈어야 할 세금을 비교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떼인 소득세 합계 · 결정세액 = 실제로 냈어야 할 세금

결정세액이 나오는 순서

1 총급여

연봉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2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구간별로 자동 계산됩니다.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3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여기 들어갑니다.

4 × 세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5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이 여기서 빠집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과세표준)을 줄입니다. 따라서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효과가 큼니다. 과세표준 24% 구간이라면 100만원 공제 = 24만원 절세.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효과가 같습니다. 100만원을 16.5% 세액공제받으면 소득이 얼마든 16.5만원 절세.

저연봉일수록 세액공제 항목(연금계좌, 월세)이, 고연봉일수록 소득공제 항목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수십 개 항목 중 직장인에게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드는 건 다섯 개 정도입니다.

① 연금저축 · IRP — 가장 확실한 카드

구분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 (초과)
연금저축	연 600만원	16.5%	13.2%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원	16.5%	13.2%

900만원을 꽉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48만 5천원**, 초과자는 **118만 8천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른 어떤 항목보다 금액이 큼니다.

넣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빼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분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몇 년 안에 쓸 돈이라면 넣으면 안 됩니다.**

② 신용카드 등 사용액 — 25% 룰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 이전 사용액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결제 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선불카드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 이상 (구간·연도별 상이)
도서 · 공연 · 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전략은 단순합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어차피 공제가 안 되므로),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것. 공제율이 두 배 차이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그 위로는 체크카드. 11월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현재 사용액을 확인하고 남은 두 달을 조정하면 됩니다.

③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일정 소득 이하라면 낸 월세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습니다. 확정일자 필요 없지만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놓치는 사람이 특히 많은 항목입니다. 회사에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의료비 — 총급여 3% 룰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부터 15%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도 1인당 연 50만원까지** 포함됩니다. 이건 자동 수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⑤ 부양가족 인적공제

1명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면 올릴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가 나오니 미리 정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안 잡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놓치는 돈입니다.

-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1인당 연 50만원 한도. 안경점 영수증 직접 챙기기
- ☐ **중고생 교복 구입비** — 1인당 연 50만원
-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주 1회 이상 월 단위 과정
- ☐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 ☐ **월세액** —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간소화에 안 잡힘
- ☐ **기부금** — 종교단체·소규모 단체 기부는 직접 영수증 발급 요청
- ☐ **따로 사는 부모님 의료비·기부금** —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합산 가능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적용됨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무주택 세대주 요건, 무주택확인서 제출 필요
- ☐ **전년도에 놓친 공제** —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특히 크게 놓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를 큰 폭으로 감면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본인이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적용됩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입사할 때 안내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하세요. 요건과 감면율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몰아서 하면 이미 늦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기	할 일
1월	간소화 자료 확인, 회사에 서류 제출. 누락 항목은 영수증 직접 수집
2~3월	환급금 수령 (보통 2월 급여). 결과를 보고 올해 전략 수정
5월	회사 정산에서 빠뜨린 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정정
1~11월	연금저축·IRP 월 납입 세팅. 12월에 몰아넣어도 되지만 나눠 넣는 게 부담이 적음
11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로 카드 사용액 점검 → 남은 기간 체크카드로 전환
12월	연금계좌 한도 채우기, 기부금 정리, 의료비 영수증 취합. 12월 31일이 마감

11월 미리보기가 핵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동으로 불러와 예상 세액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카드 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는지"를 확인하면 남은 두 달의 소비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한 번의 확인이 수십만 원을 만듭니다.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기

salarystock.com/calc-year-end-tax —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으면 예상 환급액을 볼 수 있습니다.

PART 3

대출 — 한도와 이자를 정하는 규칙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는 DSR이 정하고, 얼마를 갚을지는 상환 방식이 정합니다.
둘 다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은 DSR 하나로 결정됩니다.

$$\text{DSR} = \frac{\text{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 + \text{이자}}{\text{연소득}} \times 100$$

이자만 보는 DTI와 달리 원금까지 포함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구분	규제 한도	비고
은행권	40%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제2금융권	50%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

대출 종류별로 잡히는 방식이 다릅니다

대출 종류	DSR 산정 방식
주택담보대출	실제 상환 스케줄대로 원금 + 이자 전액
신용대출	만기가 짧아도 정해진 기간으로 나눠 연간 원금을 산정
마이너스통장	쓰지 않아도 한도 전액 을 빌린 것으로 간주
자동차 할부·카드론	연간 상환액 그대로 반영

안 쓰는 마이너스통장부터 해지하세요

DSR을 낮추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잔액이 0원이어도 한도 전액이 대출로 잡히기 때문에, 해지만으로 DSR이 몇 %씩 내려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최소 한 달 전에는 정리**해 두세요.

2025년 7월부터 3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실제 이자는 그대로인데 한도만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는 장치입니다. 한도를 계산할 때 실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 (스트레스 금리)**를 얹어서 계산합니다. **실제로 내는 이자가 오르는 게 아니라, 빌릴 수 있는 금액만 줄어듭니다.**

단계	시행	적용 대상	스트레스 금리
1단계	2024년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0.38%
2단계	2024년 9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 2금융권 주담대	0.75%
3단계	2025년 7월	전 업권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	1.50%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분만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됩니다. 또 고정금리 비중이 높은 상품일수록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어, **순수 고정금리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가 아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와 가산폭은 지역·상품·시기에 따라 조정되므로, 실행 직전에 은행에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까 — 사례

연소득 5,000만원, 기존 신용대출 3,000만원(금리 6%, 5년 분할)을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 1 DSR 40% 한도 = 연 2,000만원**
5,000만원 × 40%. 1년에 갚을 수 있는 원리금 총액의 상한입니다.
- 2 기존 신용대출이 연 696만원을 먹는다**
월 58만원 × 12개월. 남은 여력은 연 1,304만원.
- 3 금리 4.5%로 계산하면 2억 1,400만원**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기준.
- 4 스트레스 1.5%p를 얹어 6.0%로 계산하면 1억 8,100만원**
같은 소득, 같은 조건인데 3,300만원이 줄어듭니다.

2억 1,400만

1억 8,100만

-3,300만

스트레스 미적용 시

스트레스 적용 시

한도 감소액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기

salarystock.com/calc-dsr — 연소득과 기존 대출을 넣으면 남은 여력을 계산해 줍니다.

같은 금액을 같은 금리로 빌려도, 방식에 따라 총이자가 4,400만원 차이납니다.

원리금균등상환

매달 내는 총액이 동일. 초반에는 이자 비중이 크고 뒤로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집니다. 가계 계획을 세우기 쉬운 방식.

원금균등상환

매달 갚는 원금이 동일하고 이자는 계속 줄어듭니다. 첫 달 부담은 크지만 총이자가 가장 적습니다.

만기일시상환

기간 내내 이자만 내다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매달 부담은 가장 가볍지만 총이자가 가장 큼니다.

거치 후 분할상환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원금이 줄지 않아 총이자가 늘어납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만.

3억원 · 연 4.5% · 30년으로 비교

방식	첫 달 상환액	총 상환액	총이자
원리금균등	1,520,000원	5억 4,722만원	2억 4,722만원
원금균등	1,958,333원	5억 306만원	2억 306만원
차이	+438,333원		-4,416만원

원금균등을 선택하면 총이자를 **4,416만원** 아킵니다. 대신 초기 5년 정도는 매달 40만원 이상을 더 감당해야 합니다. 현금흐름에 여유가 있다면 원금균등, 빠듯하다면 원리금균등이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금리 0.5%p의 무게

금리	월 상환액 (원리금균등)	총이자	차이
4.5%	1,520,000원	2억 4,722만원	—
4.0%	1,432,000원	2억 1,562만원	-3,160만원

금리 협상은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0.5%p가 3,160만원입니다. 주거채 실적, 급여이체, 카드 사용, 청약통장 보유 같은 **우대금리 항목**을 은행에 먼저 물어보세요. 여러 은행의 가심사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0.2~0.4%p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대출이 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승진, 이직, 소득 증가, 신용점수 상승이 있었다면 은행에 신청할 수 있고, 은행은 10영업일 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

보통 **중도상환 원금 × 수수료율 × (잔여기간 ÷ 대출기간)**으로 계산하고,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유자금으로 일부 상환을 고려한다면 수수료와 절약되는 이자를 비교해 보세요.

PART 4

퇴직금 — 마지막 월급을 지키는 법

퇴직금은 근속연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퇴사 시점과 직전 3개월이 금액을 바꿉니다.

공식은 하나뿐입니다. 문제는 "평균임금"을 대부분 잘못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속 1년당 약 한 달치 임금.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는 내용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총 일수는 89~92일.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임금총액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

- ☐ 3개월간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전액
- ☐ 연간 상여금 × 3/12 — 연 600만원 상여라면 150만원을 더합니다
- ☐ 전년도 연차수당 × 3/12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어 평균임금이 낮아졌다면, 법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사례 — 월급 300만원, 3년 2개월 근무

단계	계산	결과
3개월 임금총액	300만원 × 3	9,000,000원
1일 평균임금	9,000,000 ÷ 91일	98,901원
30일분	98,901 × 30	2,967,030원
재직일수 반영	× (1,157 ÷ 365)	약 940만원

퇴사 시점을 상여금 직후로 잡으면 퇴직금이 커집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금이 들어가면 임금총액이 늘고,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퇴직금이 커집니다. 반대로 무급휴가나 감봉이 있던 기간이 3개월에 걸리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퇴사 날짜를 고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걸 먼저 계산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조건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②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이 두 가지만 충족하면 아르바이트·계약직·수습 포함 모두 법으로 보장됩니다. "우리 회사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분	DB형 (확정급여)	DC형 (확정기여)
금액 결정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	회사가 매년 넣은 돈 + 운용 수익
운용 주체	회사	본인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유리	상대적으로 불리
운용을 잘하면	영향 없음	유리
원금 손실 가능성	없음	있음 (본인 운용 결과에 따라)

DC형이라면 방치하지 마세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 돈을 **본인이 운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원리금보장형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20~30년 쌓이는 돈이라 운용 방식에 따라 수천만 원이 달라집니다. 다만 노후자금이므로 무리한 위험을 지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왜 낮을까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지만 실효세율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겹겹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근속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20년 이상이면 공제 폭이 상당합니다.

2 12로 나눠 연분연승한다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 소득'처럼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3 환산급여공제를 또 뺀다

여기서 한 번 더 줄어듭니다.

4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곱한다

결과적으로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이 길수록 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IRP로 이체하면 과세가 이연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미룹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만 부담하게 됩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IRP 수령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14일 원칙과 지연이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기

salarystock.com/calc-severance —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나옵니다.

PART 5

주거 — 전세와 월세를 같은 자로 재기

전세는 목돈이 묶이고 월세는 매달 나갑니다. 비교하려면 둘을 같은 단위로 바꿔야 합니다.

전세가 항상 유리한 것도, 월세가 항상 손해인 것도 아닙니다. 숫자로 확인하면 됩니다.

전세의 월 비용 = 전세대출 이자 + (내 돈 보증금 × 기회비용 이율 ÷ 12)

월세의 월 비용 = 월세 + (월세보증금 × 기회비용 이율 ÷ 12)

여기서 **기회비용**은 그 돈을 다른 곳에 뒀다면 얻었을 수익입니다. 보수적으로는 예금금리, 공격적으로는 본인의 기대수익률을 넣습니다. **높게 잡을수록 "전세는 손해"라는 결론이 나오기 쉬우니** 실제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냉정하게 보세요.

사례 — 같은 집, 전세 3억 vs 보증금 5천·월세 90만원

항목	전세	월세
보증금	3억원	5,000만원
대출	2억원 (금리 4%)	없음
내 돈	1억원	5,000만원
대출이자 (월)	666,667원	—
월세	—	900,000원
기회비용 (연 3% 가정)	250,000원	125,000원
월 총비용	916,667원	1,025,000원

이 조건에서는 전세가 월 약 **10만 8천원** 유리합니다. 다만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떼일 위험**입니다.

전세는 리스크를 함께 지는 선택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①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가압류 확인 ② 보증금 + 선순위 채권 합계가 시세의 70~80%를 넘지 않는지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④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열람 ⑤ 계약 당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판단 기준입니다.

$$\text{전월세전환율} = \text{월세} \times 12 \div (\text{전세보증금} - \text{월세보증금}) \times 100$$

앞의 사례로 계산하면 $900,000 \times 12 \div (300,000,000 - 50,000,000) \times 100 = \text{연 } 4.32\%$ 입니다. 이 값이 전세대출 금리(4%)보다 높으면 전세가, 낮으면 월세가 유리합니다.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낮은 쪽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2.75%라면 상한은 4.75%입니다. 임대인이 그보다 높은 전환율을 요구한다면 법정 상한을 근거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제한은 **기존 계약의 존속 중 전환**에 적용되며 신규 계약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대비용

항목	전세	월세
중개보수	보증금 기준 (더 비쌈)	보증금 + 월세 환산액 기준
대출 인지세·보증료	있음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연 0.1~0.2% 수준	해당 없음
이사비·도배장판	동일	동일

2년 거주를 가정해 **총 부대비용을 24로 나눠** 월 비용에 더하면 훨씬 현실적인 비교가 됩니다.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기

salarystock.com/calc-jeonse-vs-wolse — 보증금·월세·금리를 넣으면 월 비용을 나란히 비교해 줍니다.

PART 6

정부지원금 — 몰라서 못 받는 돈

신청 기간이 지나면 소급이 안 되는 제도가 많습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아는 것만으로 차이가 납니다.

흩어져 있어서 못 찾는 것이지, 정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이트	무엇을 찾을 수 있나
보조금24 (정부24)	로그인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한 번에 조회
복지로 (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소득·가구 정보로 수급 가능 여부 확인
고용24 (work24.go.kr)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온라인청년센터 (youthcenter.go.kr)	청년 대상 정책 통합 검색
마이홈포털 (myhome.go.kr)	공공임대, 전세자금, 주거지원 제도
홈택스 (hometax.go.kr)	근로·자녀장려금, 연말정산, 경정청구

가장 먼저 할 일은 보조금24 로그인입니다

정부24의 보조금24는 내 정보를 기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5분이면 끝나고, 몰랐던 제도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해당 없겠지"라고 지나치는 것들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직장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이고,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의 5%가 감액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재직 중에도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어학, IT, 데이터 분석까지 범위가 넓은데 **"재직자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오해해서 **안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근로소득세를 큰 폭으로 감면받습니다.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적용되고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입사 시 안내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하세요.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붙는 상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이·소득 요건이 있고 조건이 자주 바뀌므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 은행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편이 잦은 영역입니다. 사용 시점 기준의 최신 조건을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용할 때 급여가 더 지급되는 제도가 있으므로 순서와 기간을 미리 설계하면 유리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소득 기준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확인했는가
- ☐ 가구원 기준이 **주민등록 기준인지** 실제 부양 기준인지 확인했는가
- ☐ 신청 기간과 마감일을 캘린더에 등록했는가
- ☐ 필요 서류(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 등)를 미리 발급했는가
- ☐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제도는 매년 바뀝니다

이 장의 내용은 어디서 무엇을 찾을지 잡아주는 **지도**입니다. 실제 금액과 요건은 반드시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그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PART 7

남은 돈을 굴리는 순서

지키고 나면 남습니다. 남은 돈을 어디에 먼저 넣을지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월 50만원을 20년 넣으면 원금 1억 2천만원이 2억 3천만원이 됩니다.

적립식 최종금액 = 매달 납입액 × ((1 + 월수익률)^{개월수} - 1) ÷ 월수익률

거치식 최종금액 = 원금 × (1 + 수익률)^{기간}

72의 법칙 — 72 ÷ 연 수익률(%) = 원금이 두 배가 되는 해수. 연 6%면 12년.

월 50만원, 연 6% 가정

기간	납입 원금	최종 금액	수익
10년	6,000만원	약 8,194만원	약 2,194만원
20년	1억 2,000만원	약 2억 3,102만원	약 1억 1,102만원
30년	1억 8,000만원	약 5억 226만원	약 3억 2,226만원

기간을 2배로 늘리면 수익은 5배가 되고, 3배로 늘리면 **수익이 15배**가 됩니다.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일찍 시작하는 것**이 결과에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이 계산에 빠진 두 가지

① **세금** — 이자-배당에는 15.4%가 붙습니다. ISA나 연금저축 같은 세제혜택 계좌를 쓰면 달라집니다.

② **물가** — 20년 뒤의 2억 3천만원은 지금의 2억 3천만원과 구매력이 다릅니다. 실질 가치를 보려면 수익률 대신 **수익률 - 물가상승률**을 넣어 계산하세요.

그리고 수익률이 매년 일정하다는 가정 자체가 현실에는 없습니다. 이 계산은 방향을 잡는 도구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곳부터 넣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것부터 넣습니다.

1 비상금 3~6개월치

생활비 기준. 실직이나 병원비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대출을 안 쓰게 해줍니다. 이게 없으면 나머지가 무너집니다. 파킹통장·CMA처럼 바로 뺄 수 있는 곳에.

2 고금리 부채 상환

카드론·현금서비스처럼 금리가 두 자릿수인 빚은 어떤 투자보다 확실한 수익입니다. 연 15% 빚을 갚는 건 세후 연 15% 수익과 같습니다.

3 회사 지원 제도 100% 활용

퇴직연금 회사 매칭, 주식주주, 복지포인트. 공짜로 주는 돈을 먼저 받으세요.

4 연금저축 + IRP 900만원

세액공제 16.5%는 그 자체로 확정 수익입니다. 단 55세까지 묶이는 돈이라는 점을 감안하세요.

5 ISA 계좌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3년 의무가입이라 연금계좌보다 유연합니다.

6 일반 투자

여기까지 채우고 남은 돈으로. 이 단계에서야 '무엇에 투자할까'가 의미를 갖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이유

1~4번은 **수익이 확정**돼 있습니다. 비상금은 고금리 대출을 막아주고, 부채 상환은 이자를 없애고, 회사 매칭과 세액공제는 즉시 수익입니다. 반면 6번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1~5번을 건너뛰고 6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흔들릴 때 팔지 말아야 할 시점에 팔게 됩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 자체가 리스크 관리**입니다.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기

salarystock.com/calc-compound — 월 납입액·수익률·기간을 넣으면 최종 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PART A

부록

표와 체크리스트, 그리고 확인처. 필요할 때 펴보는 자료입니다.

A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표

기준 — 2026년 4대보험 요율 적용 / 비과세 월 20만원(식대) / 부양가족 본인 1명 / 단위는 원.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반영한 추정치로, 실제 원천징수액(간이세액표 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봉	월 세전	4대보험	소득세+지방세	월 실수령	연 실수령
2,000만	1,666,667	142,522	18,250	1,505,895	18,070,740
2,100만	1,750,000	150,620	20,237	1,579,143	18,949,716
2,200만	1,833,333	158,717	22,223	1,652,393	19,828,716
2,300만	1,916,667	166,815	24,209	1,725,643	20,707,716
2,400만	2,000,000	174,913	26,195	1,798,892	21,586,704
2,500만	2,083,333	183,011	28,182	1,872,140	22,465,680
2,600만	2,166,667	191,109	30,168	1,945,390	23,344,680
2,700만	2,250,000	199,207	32,154	2,018,639	24,223,668
2,800만	2,333,333	207,304	34,140	2,091,889	25,102,668
2,900만	2,416,667	215,402	38,341	2,162,924	25,955,088
3,000만	2,500,000	223,500	43,306	2,233,194	26,798,328
3,100만	2,583,333	231,597	48,271	2,303,465	27,641,580
3,200만	2,666,667	239,696	53,238	2,373,733	28,484,796
3,300만	2,750,000	247,794	61,506	2,440,700	29,288,400
3,400만	2,833,333	255,890	72,541	2,504,902	30,058,824
3,500만	2,916,667	263,989	83,575	2,569,103	30,829,236
3,600만	3,000,000	272,087	95,049	2,632,864	31,594,368
3,700만	3,083,333	280,184	106,817	2,696,332	32,355,984
3,800만	3,166,667	288,283	118,584	2,759,800	33,117,600
3,900만	3,250,000	296,381	130,352	2,823,267	33,879,204
4,000만	3,333,333	304,477	142,120	2,886,736	34,640,832
4,100만	3,416,667	312,576	153,888	2,950,203	35,402,436
4,200만	3,500,000	320,674	165,656	3,013,670	36,164,040
4,300만	3,583,333	328,771	177,423	3,077,139	36,925,668
4,400만	3,666,667	336,870	189,191	3,140,606	37,687,272
4,500만	3,750,000	344,968	200,959	3,204,073	38,448,876
4,600만	3,833,333	353,064	212,287	3,267,982	39,215,784

연봉	월 세전	4대보험	소득세+지방세	월 실수령	연 실수령
4,700만	3,916,667	361,163	223,321	3,332,183	39,986,196
4,800만	4,000,000	369,261	235,180	3,395,559	40,746,708
4,900만	4,083,333	377,358	247,589	3,458,386	41,500,632
5,000만	4,166,667	385,457	259,999	3,521,211	42,254,532
5,100만	4,250,000	393,555	272,408	3,584,037	43,008,444
5,200만	4,333,333	401,651	284,818	3,646,864	43,762,368
5,300만	4,416,667	409,750	297,227	3,709,690	44,516,280
5,400만	4,500,000	417,847	309,637	3,772,516	45,270,192
5,500만	4,583,333	425,945	322,046	3,835,342	46,024,104
5,600만	4,666,667	434,044	334,455	3,898,168	46,778,016
5,700만	4,750,000	442,141	346,864	3,960,995	47,531,940
5,800만	4,833,333	450,238	359,274	4,023,821	48,285,852
5,900만	4,916,667	458,337	371,683	4,086,647	49,039,764
6,000만	5,000,000	466,434	384,093	4,149,473	49,793,676
6,100만	5,083,333	474,532	396,502	4,212,299	50,547,588
6,200만	5,166,667	482,631	408,912	4,275,124	51,301,488
6,300만	5,250,000	490,728	421,321	4,337,951	52,055,412
6,400만	5,333,333	498,825	433,730	4,400,778	52,809,336
6,500만	5,416,667	506,924	446,139	4,463,604	53,563,248
6,600만	5,500,000	515,021	458,549	4,526,430	54,317,160
6,700만	5,583,333	523,119	470,958	4,589,256	55,071,072
6,800만	5,666,667	531,218	483,368	4,652,081	55,824,972
6,900만	5,750,000	539,315	495,777	4,714,908	56,578,896
7,000만	5,833,333	547,412	508,187	4,777,734	57,332,808
7,100만	5,916,667	555,511	526,053	4,835,103	58,021,236
7,200만	6,000,000	563,608	545,908	4,890,484	58,685,808
7,300만	6,083,333	571,706	580,429	4,931,198	59,174,376

연봉	월 세전	4대보험	소득세+지방세	월 실수령	연 실수령
7,400만	6,166,667	579,805	600,284	4,986,578	59,838,936
7,500만	6,250,000	587,902	620,139	5,041,959	60,503,508
7,600만	6,333,333	595,999	639,994	5,097,340	61,168,080
7,700만	6,416,667	604,097	659,849	5,152,721	61,832,652
7,800만	6,500,000	612,195	679,704	5,208,101	62,497,212
7,900만	6,583,333	620,293	699,559	5,263,481	63,161,772
8,000만	6,666,667	628,391	719,414	5,318,862	63,826,344
8,100만	6,750,000	636,489	739,269	5,374,242	64,490,904
8,200만	6,833,333	642,528	759,668	5,431,137	65,173,644
8,300만	6,916,667	646,667	780,568	5,489,432	65,873,184
8,400만	7,000,000	650,807	801,468	5,547,725	66,572,700
8,500만	7,083,333	654,947	822,368	5,606,018	67,272,216
8,600만	7,166,667	659,086	843,268	5,664,313	67,971,756
8,700만	7,250,000	663,226	864,168	5,722,606	68,671,272
8,800만	7,333,333	667,365	885,068	5,780,900	69,370,800
8,900만	7,416,667	671,504	905,968	5,839,195	70,070,340
9,000만	7,500,000	675,644	926,868	5,897,488	70,769,856
9,100만	7,583,333	679,784	947,768	5,955,781	71,469,372
9,200만	7,666,667	683,923	968,668	6,014,076	72,168,912
9,300만	7,750,000	688,063	989,568	6,072,369	72,868,428
9,400만	7,833,333	692,202	1,010,468	6,130,663	73,567,956
9,500만	7,916,667	696,341	1,031,368	6,188,958	74,267,496
9,600만	8,000,000	700,481	1,052,268	6,247,251	74,967,012
9,700만	8,083,333	704,621	1,073,168	6,305,544	75,666,528
9,800만	8,166,667	708,760	1,094,068	6,363,839	76,366,068
9,900만	8,250,000	712,900	1,114,968	6,422,132	77,065,584
10,000만	8,333,333	717,038	1,135,868	6,480,427	77,765,124

급여명세서 점검 (매달 1분)

- ☐ 기본급 + 수당 합계가 계약서와 일치
- ☐ 비과세 항목(식대 등)이 실제로 비과세로 처리됨
- ☐ 국민연금 = (급여 - 비과세) × 4.75%
- ☐ 건강보험 = (급여 - 비과세)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통상임금 기준 가산

연말정산 (11~12월)

-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카드 사용액 확인
-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
- ☐ 연금저축 600만 / IRP 합산 900만 한도 확인
- ☐ 안경·교복·학원비 등 간소화 미수집 항목 영수증 확보
- ☐ 월세 세액공제 요건(무주택 세대주, 주소 일치) 확인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여부 확인
- ☐ 작년에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5년 이내)

대출 실행 전

- ☐ 안 쓰는 마이너스통장 해지 (최소 한 달 전)
- ☐ 여러 은행 가심사 비교
- ☐ 우대금리 항목(급여이체·카드·청약) 확인
- ☐ 원리금균등 vs 원금균등 총이자 비교
- ☐ 중도상환수수료 조건 확인
- ☐ 기존 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전세 계약 전

- ☐ 등기부등본 열람 — 선순위 근저당·가압류 확인
- ☐ 보증금 + 선순위 채권이 시세의 70~80% 이내
- ☐ 임대인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열람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 ☐ 계약 당일 확정일자 + 전입신고

퇴사 전

- ☐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확인 (평균임금 상승)
- ☐ 연차수당 정산 확인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직접 계산
- ☐ DC형이라면 운용 현황 점검
- ☐ IRP 이체 여부 결정 (과세이연)
-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확인

C 공식 확인처와 계산기

이 책의 모든 숫자는 아래 출처에서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실제 결정 전에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부·공공기관

확인할 것	기관 / 사이트
4대보험 요율·모의계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시	보건복지부 (mohw.go.kr)
건강보험료 조회·정산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국민연금공단 (nps.or.kr)
연말정산·경정청구·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DSR·가계대출 규제	금융위원회 (fsc.go.kr)
기준금리·환율·시장금리	한국은행 (bok.or.kr / ecos.bok.or.kr)
소비자물가·고용 통계	통계청 KOSIS (kosis.kr)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minimumwage.go.kr)
퇴직금·임금체불·실업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24 (work24.go.kr)
정부 혜택 통합 조회	정부24 보조금24 (gov.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복지로 (bokjiro.go.kr)
주거지원·공공임대	마이홈포털 (myhome.go.kr)

계산기	주소
실수령액	salarystock.com/calc-net-salary
연봉 실수령액표 2026	salarystock.com/net-salary-table-2026
연말정산 환급금	salarystock.com/calc-yearend-tax
퇴직금	salarystock.com/calc-severance
DSR	salarystock.com/calc-dsr
대출이자·상환방식 비교	salarystock.com/calc-loan-rate
전세 vs 월세	salarystock.com/calc-jeonse-vs-wolse
복리	salarystock.com/calc-compound
전체 계산기 목록	salarystock.com/all-calculators

맺으며

이 책에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건 전부 법과 고시로 공개돼 있는 내용이고,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이 매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고, 총이자를 수천만 원 더 내는 상환 방식을 고르고, 퇴사 날짜 하나로 퇴직금을 줄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한 번도 자기 숫자로 계산해 본 적이 없어서**입니다.

이 책이 하려는 건 하나입니다. **당신의 숫자로 한 번 계산해 보게 만드는 것**. 부록 A에서 내 연봉의 실수령액을 확인하고, 부록 B의 체크리스트 중 하나만 오늘 실행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이 책값은 회수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한계에 대해

이 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 구조, 가족 관계, 재산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과 제도는 매년 바뀝니다. 이 책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실제 신고·계약·투자 결정 전에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바로잡겠습니다.

직장인월급투자

salarystock.com | 경제를 읽으면 월급이 자란다

문의 · 오타자 제보 : salarystock.com/문의하기